

동시대적 삶의 풍경...수묵의 미학적 가능성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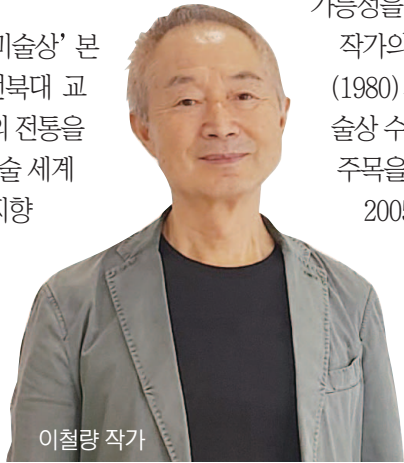
‘2024 허백련미술상 수상 이철량 작가전’ 내달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동아미술상 수상작품·문제작 등 망라
도시화로 소멸해가는 골목과 풍경에 주목...아카이브도

전통 남종화의 맥을 계승하며 예술과 삶을 하나로 실천한 의재 허백련(1891~1977) 화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광주에서 제정한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전이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지난 9월 18일 개막돼 오는 11월 9일까지 분관 5, 6전시실에서 ‘시정유묵(市情幽墨) - 지금-여기-라는 타이틀로 ‘2024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이철량 작가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 작가전은 ‘2024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자인 이철량 작가(전 전북대 교수)를 조명하는 전시로, 수묵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고, 허백련미술상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다.

전시 제목에서의 ‘시정’(市情)은 자연에서 머물던 전통 수묵의 시선을 도시의 감성으로 확장한 작가의 미학을 함



이철량 작가

축하며, 여기서 수묵은 인간, 자연,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삶을 전달하는 조형 언어로 읽힌다.

전시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 ‘전통과 현대 사이-새로운 수묵’에서는 1980년대 수묵화 운동을 주도한 이철량 작가의 초기 작업을 중심으로, 수묵의 조형성과 현대적 해석을 탐구한 미학적 사유를 소개한다. ‘언덕’(1980~1984)은 일상 풍경을 소재로 먹의 번짐과 변화에 주목하며, 수묵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한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작가의 초기 수묵 작업은 동아미술상(1980)과 문제작가전(1982) 등 주요 미술상 수상과 전시 초대를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시’(1988~2005) 연작으로 이어지는 작업은 매체 실험을 주재적 탐구로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며, 수묵화의 현대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시’는 전북대학교 교



‘언덕’

수 제작 초기(1985~2017)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로, 이념 대립과 사회 갈등 속에서 현대인의 내면에 회복과 연대의 가치를 불어넣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수묵을 동시대성과 긴밀히 연결하고 이를 미학적 언어로 재해석하려는 그의 지속적인 실천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표 연작이다.

이어 2부 ‘동시대 회화로서의 수묵-또 다른 자

연’에서는 ‘도시’(2007~2018)와 ‘또 다른 자연’(2019~)을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와 그 속에 스며든 삶의 흔적을 주제로 한 최근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 특유의 필선과 여백, 먹의 질감은 도시의 기억을 시각화하며, 인간·도시·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시를 ‘또 다른 자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 산

업화 과정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일상의 흔적을 섬세하게 포착한 것이다.

작가는 200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해 소멸해가는 골목과 풍경에 꾸준히 주목해 왔으며, 인공적 공간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존재가 자연처럼 스며들 수 있음을 수묵을 통해 시각화해 왔다. 도시라는 인공 환경을 생태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 매체인 수묵을 통해 동시대적 삶의 풍경을 담아내는 독창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주요 작품과 함께, 작가가 주도했던 1980년대 수묵화 운동 관련 전시 자료(1980~1993) 및 전북대학교 교수 재직 시기에 집필한 작가의 글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여기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비평가 대담 인터뷰 영상도 연계 상영 중이다. 이 영상은 전시 도록에 기고한 비평가 조순식 명예교수(조선대)와 이민수 초빙교수(홍익대)의 10개 질문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작가의 작업 세계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있는 콘텐츠로 제공된다.

한편 2025년 허백련미술상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인 장진원 작가(59·광주)와 특별상 수상자인 임포식 작가(38·서울)에게 광주시장 상패가 수여됐다. 아울러 차기년도에는 본상 수상자에게 1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비가 지원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개최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공연리뷰

광주시립발레단 제41회 정기공연 ‘해적(Le Corsaire)’

한국 발레 승급시킨 안무가의 현명한 선택

광주시립발레단(단장 박경숙) 제41회 정기공연으로 국내에서 잘 공연되지 않는 ‘해적(Le Corsaire)’을 올렸다. (9월 26~27일, 광주예술의전당)

‘해적’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장면을 갈라로 올려져 많이 본 듯하지만 전막은 수십년 전 국립발레단 공연 이후 국내 제작은 드문 일이다. 전막이 잘 공연되지 않는 이유는 엄두 내기 힘든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아돌프 아당 음악에 마리우스 프티파의 원전을 기준으로 해도 스토리 텔링이 복잡하고 결가지가 많아 안무가 웅이하지 않으며 무대 제반 요건에 무용수의 고난도의 정교한 기교를 요구한다. 또 현대에 들어서서는 해적, 노예, 여성, 이슬람문화 등 예민한 소재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제작은 총연출 및 예술감독 박경숙에 마린스키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현재 마린스키발레 프리모르스키극장의 예술감독인 엘다르 알리에브 안무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알리에브의 안무는 정통 오리진 마린스키의 감성이지만 간결한 스토리에 무용수의 춤 위주로 풍성하게 펼쳐지는 점이다. 시립발레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연구해 그 현실적인 것을 끌어올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토파임의 설명적 극적 전개에 요소를 없앴지만 환상적인 발레의 낭만성인 기분을 가지고 갔다. 해적, 노예 등 논쟁적 주제를 ‘사랑’으로 표상화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시립발레단 스태프전 전체, 특히 무용수들이 급성장했으리라 예견할 수 있다.

19세기 고전발레의 대표작 중의 하나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은 납치된 여인을 구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해적 콘라드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모험과 사랑 이야기이다. 각 캐릭터들의 개성이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전개에는 화려한 의상과 장치 속에 무용수들의 정교한 움직임이 전부를 차지한다. 박승유 지휘의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도 이번 제작을 빛냈다.

안무자 엘다르 알리에브는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도 프랑스를 거쳐 러시아에서 마리우스 프티파에 의해 희생된 이 레퍼토리의 주요 춤인 켈나라의 솔로 바리에이션, 하렘 노예들의 ‘오달리스크 파드 트루아’ 등은 그대로 살렸다. 콘라드와 메도라의 사랑을 드라마의 중심에 놓고 2막으로 압축해 전개를 빠르게 했다. 작품의 특징인 다채로운 춤을 살려 콘

라드와 메도라의 파드되의 묘기를 보여준다.

의상 및 장치 디자이너 페트로 오쿠네브는 동양(이슬람문화)의 동화가 가진 다채로움과 이국적인 매력을 담아냈다. 페르시아로 연상되는 고대 중동의 미학으로 호화로움과 낭만을 반영,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환상이 펼쳐진다. 2막은 그 화려함이 더 상승했다.

안무가 엘다르 알리에브는 이번 시립발레단의 버전을 ‘제3의 길’로 표현했다. 마린스키 버전은 원작에 충실하며 낭만주의 시대의 팬터마임 발레가 얼마나 즐겁고 매혹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교를 부각했고,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는 의도적으로 클래식을 유쾌하게 비틀어낸 작품이며, 과장된 극적 요소로 가득찬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요약한다. ‘해적’이라는 레퍼토리가 고풍스럽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고전임을 놓치지 않은 안무자는 현대 관객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야기보다 응집력있고 이해하기 쉬운 줄거리로 단순화된 속에 고난도의 기량을 즐긴다는 판단 아래 프티파의 안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세심히 보존하면서 다른 부분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는 각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격을 재해석했다. 콘라드는 강인하고 활기차며 에너지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안무가의 이 같은 관점을 무대에서 구사하는 무용수들이 결국은 발레 매력의 중심에 있다. 광주



광주시립발레단 제41회 정기공연 ‘해적(Le Corsaire)’

시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은 격조와 감성 표현을 중시하며 호소력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영상으로 처리해 폭풍우를 헤치며 해적선이 지중해 동쪽 해안을 향해 항해하는 장면 프롤로그로 시작해 총 2막의 여섯 개의 큰 장면이다. 주역진은 발레의 교과서적인 기량들을 차원있게 구사한다.

제1장에서 생기넘치는 미녀 켈나라의 춤이 사로잡고, 메도라의 고혹적인 자태의 춤이 부각된다. 셰이드 파사의 캐릭터 댄스는 유모어가 돋보였고, 노예상인 왕겐렘의 묘기는 출중했다. 콘라드 꿈의 장면은 프티파 작품의 전형적인 발레블랑(백색발레 군무)인데 안무자의 해석은 발레블랑을 백색으로 독립시켰다기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톤으로 수렴되는 핑크 혹은 살구빛의 감성으로

이어갔다. 꽃발은 표현하는 여성군무의 화환을 든 춤 등이 마린스키의 동화적 감수성이다.

2막은 셰이드 파사의 궁전(하렘)에서의 오달리스크 3인무, 메도라와 콘라드, 켈나라의 가지 발레의 춤, 하렘의 여인들의 춤, 캐릭터 솔리스트 이인무, 해적의 솔리스트, 해적들의 군무 등 화려한 춤으로 가득찬다. 스토리를 마임이 아닌 춤으로 전개한다. 해적들은 대장 콘라드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 메도라를 맞이하며 무사 귀환을 축하한다. 자유로운 바람에 돛을 펼친 채 연인들은 행복을 향해 항해하는 영상으로 끝을 맺는다. 무용수의 기량을 살리며 결국은 한국 발레를 승급시킨 안무가의 현명한 선택이 성공의 핵심으로 보인다.

김경애 (총 평론가)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